



제17회 영산강 자전거 대행진이 지난달 29일 승촌보 일원에서 전남일보 주최·전일엔컬스 주관·전남도 후원으로 열려 참가자들이 영산강변을 달리고 있다.

김양배 기자

“영산강 자전거길 달리면 여름 더위도 잊히죠”

제17회 영산강 자전거 대행진 성료

150여명 승촌보서 왕복 24km 질주
“몸과 정신 함께 행복해지는 라이딩”

“신체적인 건강에도 정신적인 건강에도 자전거가 도움이 되죠. 앞으로도 자전거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구름이 살짝 끼고 바람이 부는 여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선선한 날씨를 보인 지난달 29일 오전, 나주 영산강 자전거길은 6월의 마지막 주말을 만끽하기 위한 라이더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제17회 영산강 자전거 대행진이 이날 광주·전남 지역 자전거 동호인과 일반인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졌다. 전남일보 주최, 전일엔컬스 주관, 전남도 후원의 이번 자전거 대행진은 호남의 물줄기를 따라 달릴 수 있는 영산강 자전거길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각양각색의 자전거와 헬멧, 고글, 자전거복 등 개성을 자랑한 150여명의 참가자



제17회 영산강 자전거 대행진에 딸과 함께 달리고 있는 문태웅씨.

김양배 기자

들은 출발 30분 전부터 영산강 6경인 광주 남구 승촌동 승촌보문화관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참가자들은 자가용 대신 가정에서부터 라이딩을 출발하는 등 자전거 사랑을 뽐내는 모습이였다.

이들은 출발지에 마련된 단상에 올라

기념 촬영을 하며 추억을 남긴 뒤 바퀴와 체인, 브레이크 등 자전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진행자의 구령에 맞춰 스트레칭을 하는 등 출발 준비를 마쳤다.

참가자들은 오전 9시가 되자 ‘안전한 라이딩하세요’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친

뒤 안전 요원을 포함 다섯 명에서 열 명씩 소규모 단위를 이뤄 반환점인 영산강둔치 체육공원을 향해 페달을 밟았다.

영산강 자전거길을 인솔한 선발대를 앞세운 참가자들은 승촌보문화관 광장에서 영산강둔치체육공원까지 왕복 24km를 달리며 선선한 바람을 만끽했다. 24km가 아쉬운 참가자들은 추가로 라이딩을 즐기기도 하며 각자의 운동량에 맞춰 달렸다.

특히 비 예보가 있었지만 행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으며 자전거를 즐기기에 최상의 날씨가 갖춰졌다. 습도도 높지 않아 지평선을 따라 뻗은 강물을 시원하게 달리는 모습이였다.

팔순을 앞둔 나이에도 자전거를 타고 나선 명향자(78)씨는 “국도 종주와 4대강 종주, 그랜드슬램까지 자전거를 타고 할 수 있는 모든 도전에 나서고 있다”며 “자전거가 내 남자친구라고 생각한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평생 자전거를 타겠다”고 밝혔다.

나란히 자전거를 끌고 영산강에 나선

김동익(50)·김동현(12) 부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함께 자전거를 탄다. 가족 간의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자전거를 타면서 학교 생활 얘기도 나누고 하다 보면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다. 내년 봄에는 제주도를 한 바퀴 종주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자전거에 트레일러를 장착하고 나선 부녀도 눈에 띄었다. 문태웅(33)·문태리(4) 부녀는 “딸이 자전거를 좋아해서 유치원 등하원도 트레일러로 하고 주말에도 같이 나온다”며 “혹시나 비가 오더라도 커버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앞으로도 딸과 자전거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에 시작된 제17회 영산강 자전거 대행진은 낮12시까지 마무리됐다. 기록 경쟁이 아닌 함께 자전거를 즐기기에 퍼레이드 형식의 대행진인 만큼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각자 속도에 맞춰 라이딩을 즐긴 뒤 해산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흔들리는 마운드’ 위기의 이범호호, 손승락 수석 코치 체제로

최근 4경기 49실점 “마운드 강화”
진갑용, 퓨처스 감독으로 변경



선두 수석 위기를 맞은 KIA타이거즈가 코칭스태프 개편으로 분위기가 수습됐다.

30일 KIA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손승락(사진) 퓨처스 감독을 수석 코치, 진갑용 수석 코치를 퓨처스 감독으로 각각 보직 변경했다. 손승락 수석 코치는 이날 곧바로 1군에 합류해 이범호 감독을 보좌하며 진갑용 퓨처스 감독은 선수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손승락 수석 코치는 정재훈 투수 코치, 이동걸 불펜 코치와 함께 마운드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KIA는 선발부터 불펜까지 올 시즌 크고 작은 부



침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 25일 사직 롯데전에서 4회초까지 14-1로 앞섰으나 7회말 14-15 역전을 허용하며 한·미·일 3대 프로야구를 통틀어 최다 점수 차 역전을 허용한 뒤 마운드 운용에 과부하가 걸린 모습을 보였다.

27일 사직 롯데전에서는 4회말부터 6회말까지 3이닝 동안 11실점하며 2-11로 역전패했고, 28일 광주 키움전에서는 1회초부터 3회초까지 15실점하며 6-17로 참패했다.

이범호 감독은 지난달 2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기아 히어로즈와 시즌 6차전을 앞두고 “투수 쪽에 조금 더 힘을 보태야 될 것 같다”며

“손승락 수석 코치가 전력강화 코디네이터와 퓨처스 감독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위기도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어제 경기가 끝나고 미팅을 가졌다. 남은 경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반기도 몇 경기 안 남았는데 여러 면에서 힘들어지면서 변화가 필요한 시기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최소 실점해야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투수들이 지쳐 있고 점수를 많이 주다 보니까 투수 파트 코치들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며 “손승락 수석 코치와 정재훈 투수 코치가 현역 시절 불펜으로 활약했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면 큰 시너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불펜 안정화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

광주시청 장애인 양궁 김옥금, 월드 랭킹 대회 銀 2

파리 패럴림픽 메달 청신호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김옥금(64·사진)이 장애인 양궁 월드 랭킹 대회(PARA-ARCHERY WORLD RANKING EVENT)에서 은메달 두 개를 차지하며 오는 8월 열리는 2024 파리 패럴림픽 메달 사냥에 대한 전망을 밝혔다.

김옥금은 지난달 22-30일(현지 시간) 체코 노보 므네스토 나트 메투유이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자 W1 개인전 결승에서 아시아 펠리자리(이탈리아)에게 123-132로 패하며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이번 대회는 패럴림픽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실전으로 2020 도쿄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첸민이(중국)와 동메달리스트 킹스톤 빅토리아(영국) 등 세계 정상



급 선수들이 대거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김옥금은 혼성 W1에서도 박홍조(서울시청)와 팀을 이뤄 은메달을 합작했다.

김옥금과 박홍조는 결승에서 첸민이·장텐신(이상 중국)에게 143-144, 1점 차로 석패했다.

김옥금은 이번 대회 은메달 두 개를 수확하며 파리 패럴림픽 메달 사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김옥금은 “광주의 홍보대사라는 자부심을 안고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며 “아쉽게 금메달을 놓쳤지만 부족한 1%를 보완해 파리 패럴림픽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